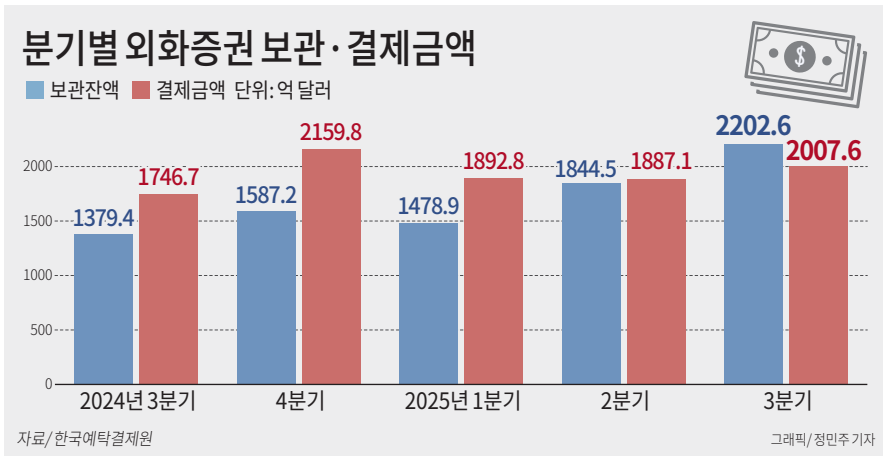


심화되는 개미의 양극화… ‘빚투의 코스피’ vs ‘신뢰의 미장’

국내자금 해외시장 급속 이동
외화보관액 2200억달러 돌파
국내신용융자 잔액 24조대
은행예금 한달새 20조 감소

“코스피는 (투자) 하지 않아요.” 20대 후반의 사회 초년생 김광중(가명)씨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확실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코인) 투자에 관해 묻자 한국 증시에는 투자한 적도, 투자할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한차례 차익을 남긴 티라 코스피나 코스닥에서는 수익이 더는 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30대 초반의 직장인 이태연씨도 마찬가지다. 이씨는 “삼성전자나 한화에너지에 투자했다가 3분의 2가량을 처분했다. 코스피 주식은 변동성이 커 불안하다”며 “대신 미국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등 국내 주식에 1억3000만원을 투자하던 자영업자 이태연(39)씨는 이달 초 3분의 2 정도를 팔았다. 코스피가 3700선까지 오르자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해서다.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국장(국내 증시)과 해외 증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빚을 갚은 미장(미국 증시)밖에 없다’는 서학개미(해외 주식투자자)들의 투자액이 2200억 달러를 넘었다. 사상 최대다. 반면 동학개미들은 빚투(빚을 낸 주식투자)에 나서며 달리는 말(코스피)에 올라타고 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하려면 “자본시장이 충분한 수준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율건 ‘미장’이라는 서학개미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220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분기(1844억5000만달러) 대비 19.4% 증가하며 분기 기준 처음으로 2200억달러를 넘어섰다.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2007억6000만달러로 6.4% 늘었다.

종류별로 외화주식은 1660억1000만달러로 22% 증가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외화채권은 542억5000만달러로 12%

늘었다. 특히 외화주식 보관금액은 1년 전(1020억달러)보다 약 63% 급증했다.

시장별로는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80.7%를 차지했으며, 유로시장·일본·홍콩·중국 등 상위 5개 시장이 98.8%를 점유했다. 외화주식만 놓고 보면 미국 주식 비중이 93.7%에 달했다. 보관금액 상위 종목은 모두 미국 기업으로, 테슬라(274억9300만달러), 엔비디아(163억달러), 팔란티어A(64억5700만달러), 애플(46억6600만달러), IONQ(37억3100만달러) 순이었다. 상위 10개 종목의 보관금액이 전체 외화주식의 45.6%를 차지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AI와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투자 열기가 국내 투자자의 해외 매수세를 이끌었다”며 “국내 증시 강세와 병행해 글로벌 기술주 투자도 확대되는 이중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올라타자’ 빚투 24조 넘어서
동학개미들은 빚투에 나서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3일 기준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4조4220억 원으로 전월 말(23조4928억 원)

보다 9292억 원 늘었다. 신용융자 잔액은 이달 20일 2021년 8월 9일 이후 약 4년 만에 24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신용거래융자란 개인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해당 잔액이 많을수록 개인들이 주식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

개인들의 투자 열풍은 은행권의 잔액 추이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23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49조5330억 원으로 전월 말(669조7238억 원)보다 20조1908억 원 줄었다. 요구불예금은 뚜렷한 용도나 투자처가 없는 대기 자금을 통칭한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환원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 “자본시장의 제도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꾸준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이찬진 “상호금융 감독권 일원화 동의”… 정치 논란엔 선 그어

금융감독원 2025 국정감사

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대 의지
강제조사권 도입 필요성 강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상호금융 감독체계 일원화와 금융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확대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했다. 전임 원장 시절 ‘정치적 보고서’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원 특사경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가조작 사건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원만큼 효능감 있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인지수사권 등 제도 정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명시돼 있음에도 하위 규칙으로

검찰 지휘에 종속된 현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며 “국립공원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도 인지수사권을 갖고 있다. 금융원 특사경만 예외일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수사가 개시돼도 금융원 조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검찰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건이 공개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원의 강제조사권 부재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신고포상제 접수 사건이 단순 종결되는 이유는 현장에서 강제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금융위·거래소·금융원이 합동대응단을 꾸려 강제조사권을 함께 활용한 사례처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금융상황분석팀’이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자 “저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원장 시절 해당 팀이 ‘패션도 정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정치인 복장 사례를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런 보고를 받는다면 분석팀을 해체하겠다”며 “현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전임 원장 시절 문제점이 있었다면 확인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시 인적 제재까지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검찰 가능성을 언급하자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치 행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금감원의 본연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감독 주체가 분산돼 금감원의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며 “금감원의 입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고, 행정안전부도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도 쟁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며 “상호금융 중앙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감독체계를 금감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부처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나눠 관리하고 있어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허정윤 기자

하나증권, 통합계좌로 외국인 매매 첫 거래 성사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외국인투자 절차 대폭 간소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가 활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매수세가 거세지고 있다. 외국인이 반도체 등 대형 수출주를 중심으로 ‘사자’에 나서며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하나증권이 외국인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투자 인프라를 완성했다.

하나증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고 최근 첫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자국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직접 매매한 사

례로 기록됐다.

그동안 비거주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 외환 등록, 예탁결제원 코드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하나증권의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로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현지 증권사를 통해 직접 주문·결제할 수 있게 됐다. 하나증권은 지난 8월 홍콩 엠퍼러증권과 협약을 맺고, 이를 통한 첫 거래까지 마쳤다.

이 서비스로 해외 투자자의 한국 주식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만 5조원을 순매수하는 등 ‘귀환’ 움직임이 뚜렷해진 상황에서 의미가 크다.

외국인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기대와 정책 신뢰도 회복에 따라 국내 시

장을 재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등 친시장 정책을 내놓은 점도 자금 유입을 자극했다.

하나증권은 외국인통합계좌 외에도 투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글로벌 투자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하나은행과 협업해 ‘하나 해외주식투자 전용 통장’을 출시해 외화 이체 없이 달러로 해외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했다. 9월에는 하나은행·하나카드와 함께 ‘트레블로그 외화통장’을 선보이며 여행 외화 자금과 투자 계좌를 연계한 서비스를 확장했다.

또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원화·달러·엔·유로·위안 등 5개 통화로 확대해 서학개미의 거래 효율성을 높였다. /허정윤 기자

NH투자증권, 퇴직연금 1년 수익률 20% 달성

장기수익률도 안정세 유지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운용 성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27일 NH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 기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1년 수익률이 20.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익률도 17.5%로 집계됐다. 두 수익률 모두 증권사 평균(DC 17.2%)을 웃돌며, DC형 적립금 1조원 이상 사업자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3년, 5년, 7년, 10년 등 모든 장기 구간에서도 증권사 평균을 상회했다. 시장 변동성에도 안정적인 성과를 낸 것은 적극적인 글로벌 자산배분과 ETF 활용 덕분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860여개의 ETF와 국채·회사채·지방채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타사 퇴직연금 상품도 매도 없이 실패 이전이 가능해 계좌 이동의 편의성도 높였다.

또한 투자 성향, 은퇴 시점, 기대수익률 등을 분석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퇴직연금 PICK’ 서비스와 AI 신기술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가 결합돼, 고객별 최적의 운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4월 출시된 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단기간 내 업계 최고 수준의 운용 성과를 보였다.

이재경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문 부사장은 “고객의 노후자산을 책임지는 금융 파트너로서 꾸준한 수익률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